



*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		다함께
*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		다함께
기도 Prayer		장헬렌
*주님의기도 Lord's Prayer		다함께
*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	고후 12:1-10	다함께
말씀선포 Sermon	약함	유형선
*찬양 Praise		다함께
*봉헌&축도 Offering&Benediction		유형선

\*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 
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.

### 주일대표기도

9월 24일	10월 1일
류외자	서경열

### 예배시간안내

주일예배	오후 2시
아침묵상	(화-금) 매일 오전 6시 (Youtube)

### 공동기도제목

1. 말씀 안에서 -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
2. 나라와 민족 -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
3. 교회와 선교 -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

## 감사 커트라인

우리에게는 4가지의 '나(자아)'가 있습니다. 현실적인 나와 이상적인 나, 실현 가능한 나와 의무적인 나. 이러한 자아개념의 수준은 자아 존중감, 자기 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.

이상적인 나와 실현 가능한 나 사이에 격차가 생기면 우울증, 실패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또 실현 가능한 나와 주위에서 요구하는 의무적인 나 사이에 격차가 생기면 불안감, 좌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어떤 이가 멋진 스포츠카를 몰고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. 그때 그의 머리 위로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갑니다. 그는 갑자기 헬리콥터 탄 이가 부러워했습니다. 그런 그의 옆에서 낡은 자동차를 모는 이는 스포츠카 탄 이를 부러워합니다. 그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는 낡은 자동차 탄 이를 부러워하고, 바로 옆 인도에서 땀 흘리며 걷는 이는 자전거를 탄 이를 부러워하는데, 휠체어를 탄 어떤 이가 걸어가는 행인을 바라보며 부러워합니다.

이들 가운데 행복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. 만약 스포츠카 운전자가 헬기 탄 이 대신 낡은 차 운전자를, 걷는 이가 휠체어 탄 이를 바라본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.

주변에 자신은 욕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.

그런데 그들이 꼭 이렇게 토를 달니다. "그런데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"

감사는 기준을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.

감사에도 고수, 중수, 하수가 있습니다.

감사 하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만 감사합니다.

감사 중수는 세상 일이 내 조건에 충족되면 감사합니다.

그러나 감사 고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.

감사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불만 속에서 사는 감맹(感盲)도 있습니다.

하수에서 중수로, 중수에서 고수로 올라갈수록 감사의 기준선이 더 낮아질 것입니다. 기준선이 낮을수록 감사가 더 깃들 것입니다.